

**P2-09**

**중학생의 학교급식 만족도 및 음식 기호도 조사: 충남 공주지역의 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문현경, 이정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정보학과

본 연구는 2000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의 단독조리교와 중학교 급식 확대 과정에서 예산 절감과 재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의 초등학교의 조리실에서 중등으로 운반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공동조리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음식기호도를 분석하여 피급식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남 공주지역의 2,3학년 남녀 중학생 686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와 음식기호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체 남학생 55.3%, 여학생 44.7%이었고, 직영조리교 남학생 31.6%, 여학생 24.5%, 직영운반교 남학생 23.8%, 여학생 20.1%이었다. 전반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31.4%)이 여학생(22.3%)보다 높게 나타났고, 급식유형별로 보면 직영조리교(28%)가 직영운반교(2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이유로는 남학생의 경우 내입맛에 맞지 않아서(42%)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식단이 다양하지 못해서(35.6%)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유형별로 보면 직영조리교, 직영운반교 모두 내입맛에 맞지 않아서가 각각 44.4%, 32.0%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비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이 42.6%, 여학생이 32.3%가 만족한다고 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직영조리교 53.2%, 직영운반교가 18.3%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직영운반교의 경우 초등학생과 같이 급식을 실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급식비에 대해 높다고 생각되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음식 기호도에 있어서는 직영조리교와 직영운반교에 있어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학교급식에서 먹었던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탕수육(12.3%)> 돈육커티렛(7.7%)> 자장밥(6.3%)> 비빔밥(5.0%)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싫어하는 음식으로는 배추김치(9.2%)> 콩밥(8.0%)> 된장국(5.2%)> 시금치나물(4.5%)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교급식의 결과 좋아진 점에 대해 남학생 (42.9%), 여학생의 (47.0%)가 별로 좋아진 점이 없다고 나타났다. 학교급식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급식 관리를 위한 연구와 음식 기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기호도 조사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P2-10**

**어린이신문 및 잡지에 게재된 식생활 관련정보 분석 연구**

문현경\*, 조연진. 단국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식품영양정보학과

본 연구에서는 지적발달의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 및 잡지 속에 식생활 정보가 어떤 주제와 유형으로 얼마나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사례들과 허위·과대광고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현 초등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소년조선일보, 소년동아일보, 소년한국일보 3개를 선정하고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는 잡지, 어린이동산, 새벗을 선정하였다. 기간은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하여 신문과 잡지별로 기사와 광고에 나타난 식생활관련 정보가 차지하는 양적인 분석, 즉 비율과 건수를 분석해 보았고, 질적인 분석. 식생활정보의 주제별, 영역별, 부정확도, 취재원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신문 전체의 평균 지면수는 5,73면(범위: 8-4)이고 6개월 동안의 신문 전체면적 중 기사면적과 광고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5.4%와 42.2%였다. 잡지 전체의 평균 지면수는 217.07면(249-192면)이고, 잡지전체 면적 중 기사면적은 77.9%, 광고면적은 3.6%였다. 매체별 식생활정보의 면적을 분석해보면 전체 기사면적 중 식생활관련 정보의 비율은 소년조선일보가 2.17%로 제일 많았고, 소년한국일보가 0.42%로 제일 작았다. 또 신문별 전체광고면적 중 식품관련 광고의 비율은 소년조선일보가 10.9%이고 소년동아일보가 7.4%로 제일 작았다. 잡지의 경우 전체 기사 면적중 식생활 관련 기사의 비율은 새벗이 8.0%, 어린이동산이 3.2%를 차지했고 전체광고면적 중 식품관련 광고의 비율은 어린이동산이 40.8%, 새벗에서는 식품관련 광고가 없었다. 매체별 식품관련 광고중 광고종류별로 차지하는 건수를 알아본 결과 신문, 잡지 모두 일반가공식품에 대한 광고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식생활 정보의 주제별로 분석해보면 신문의 경우 소년조선일보가 음식과 요리 27.5%와 식품의 안전성 및 유해성 22.5%였고 소년한국일보에도 식품의 안전 및 유해성 47.7%였다. 잡지의 경우에는 음식과 요리에 대한 내용이 50%이상을 차지했다. 식생활정보의 영역별 분류를 보면 3개의 신문 모두 보도기사가 60%이상 나타났고 잡지의 경우도 보도기사가 54.6%로 제일 높았다. 식생활정보에 관련된 기사내용의 부정확도를 보면 신문의 경우 기사192건 중에서 111건 57.8%는 부적절한 기사내용이고, 잡지의 경우는 총 18건중 7건 38.9%가 부적절한 기사내용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신문과 잡지에서 기사는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혼돈과 판단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식생활정보의 오용 및 남용을 막고 올바른 정보제공의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 대상 매체에서 좀더 체계적인 모니터가 계속 진행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